

이 땅에 솟아난 웅장화려한 인민사랑의 기념비



웅장하게 솟아오른 송화거리



얼마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인민의 리상거리로 웅장하게 솟아오른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이 성대하게 진행되어 공화국인민들을 크게 기쁘게 해주고 있다.

시원하게 뻗어나간 대통령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선 현대적인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교육, 보건, 편의봉사시설들, 고가다리, 장식구조물들이 특색있게 조화되어 조형화, 예술화와 호상성, 편결성, 실용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송화거리와 수도의 중심부를 감돌아흐르는 경치좋은 보통강반을 따라 현대적인 다락식주택구를 형성하고 다층, 소층살림집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이 조화를 이룬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를 사람들은 테스트하게 보지 않는다.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야말로 최악의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 속에서 솟아난 사회주의선경, 인민이 바라고 기다리는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올라야 할 절세위인의 불같은 신조에 의하여 이 땅에 일떠선 인민사랑의 기념비이다.

이렇듯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절세위인의 불같은 인민사랑에 떠받쳐 인민의 리상거리, 행복의 별천지인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일떠서게 되었다.

하기에 궁궐같은 새집을 받아안은 로력혁신자들과 평범한 근로자들은 꿈같은 현실앞에 감격과 흥분을 금치 못하여 자신들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

《제가 나라를 위해 일을 했다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너무도 한 일이 없는데 이런 훌륭한 새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시고 고마움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일을 더 잘해서

이런 궁궐같은 새집을 받아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이 꿈같은 현실앞에 우리 나라가 제일이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찡니다. 이 고마운 제도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의 새집을 받아안은 사람들의 심장의 토로이다. 진정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인민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복무로 일관시키고 위민헌신의 날과 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하를 같은 은덕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저같은 평범한 노동자가 이런 궁궐같은 새집을 받아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의 새집을 받아안은 사람들의 심장의 토로이다.

이것이 바로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의 새집을 받아안은 사람들의 심장의 토로이다.

이것이 바로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의 새집을 받아안은 사람들의 심장의 토로이다.

이것이 바로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의 새집을 받아안은 사람들의 심장의 토로이다.

비범한 정치실력과 열렬한 조국애, 숭고한 인민사랑으로 위대한 부흥강국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절세위인상을 광범한 세계인론들이 높이 칭송하고 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가장 인기있고 대단히 매력있는 정치가로 세인의 각광을 받고계신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시는 정치가,》

《김정은원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시는 정치가,》

《김정은원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시는 정치가,》

《김정은원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시는 정치가,》

《김정은원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시는 정치가,》

《김정은원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시는 정치가,》

《가장 인기있고 대단히 매력있는》 정치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사회주의보건제 도하에서 꽃피는 인민사랑의 건설

공화국에서는 의료일군들이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진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이 매일과 같이 전해져 사람들의 마음을 후덥게 해주고 있다.

얼마전 취재차로 광산군 인민병원을 찾았던 우리는 이곳 의료일군들속에서 발휘된 미덕, 미풍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수 있었다.

문장리에서 살고있는 한군부녀성이 여러 합병증으로 병원으로 실려왔을 때였다. 혈압은 떨어지고 맥박은 거의 나 알리지 않아 환자상태는 위급하였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환자를 살려내기 위한 긴급조치들을 취하고 협회회를 열었다.

《현재 환자는 협심증과 산부인과질병을 비롯한 여러 합병증으로 하여 대단히 위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환자의 몸

상태를 최대로 고려하여 치료 방안을 세우시다.》

《뜨거운 정성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환자를 완쾌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협회회 이후 치료전투가 벌어졌다. 의료일군들은 환자를 완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

환자의 결에서 살다싶이하고 병치료를 도우며 필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연구를 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한두번이 아니었다.

환자의 건강을 추켜세우기 위해 밤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기도 하고 성의껏 준비한 영양음식들을 들고 찾아오는 의사, 간호원들의 모습은 한군부녀성의 마음속에 남이 아니라 천혈육의 모습으로 안겨왔다.

이런 뜨거운 정성이 있어



도민병원에 입원하였었습니다. 제가 눈앞이 캄캄하여 맥을 놓고 주저앉아있을 때 병원에서 환자의 회복을 위해 협회회를 여러 차례 진행하고 필요한 치료대책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수술후 남편의 건강은 현저히 회복되었습니다.

어려운 수술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담당의사를 비롯하여 매일과 같이 남편의 회복상태를 세심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취해주며 애쓰던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원들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수 없습니다.

이런 뜨거운 정성이 있어

이런 뜨거운 정성이 있어

일 귀중히 여기고 환자의 소생을 위해 피와 살도 아깝게 이 바치며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는 이런 참다운 의료일군들은 공화국외에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라는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고마운 이 제도를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남조선잡지 《주간경향》에 실린 아래의 기사는 환자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남조선병원들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의료법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곳은 어디일까? 병원이다.》

《의료법위반의 또 다른 사각지대는 료양병원이다. 료양병원은 받는 금액이 일정하기때문에 환자

남조선에서 범죄집단으로 비난받는 병원

필요한 비용들을 국가사회보험에산에서 지출하고 있다. 남방원들에 대한 휴양은 거울에 오직하는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의하여 상상내 놓고 자랑할만한 종합적인 온천치료봉사기지, 다기능화된 체육문화회식기지로 일떠선 양력온천문화휴양지를 비롯한 각지의 휴양장과 정양소들, 문화정서생활기지들마다에서 인민들의 기쁨넘친 웃음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처럼 의료위반은 주로 병원이 리유를 많이 남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개인이익이 아니라 병원이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인 것이다.

《의료법위반의 또 다른 사각지대는 료양병원이다. 료양병원은 받는 금액이 일정하기때문에 환자

에게 쓰는 돈을 아끼도록 병원이 이리 올라간다. 그래서 주사기 등 1회용품의 재사용은 말할것도 없고 감염위험때문에 한번 쓰고 버려야 하는 수액 하나를 한두달씩 여러명의 환자에게 돌려가며 쓰고 있다. 더 끔찍한건 병원들이 환자들의 고통에 무감하다는 점이다. 한 료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말기암환자에게 투여되는 진통제를 원래 쓰던 용량의 10분의 1로 줄여서 주었다고 했다. 분만통증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암성통증에 가까워야 할 말이 되는 소리인가. 진통제를 투여하면 편안해 질수 있는데 진통제 몇분을 아끼려고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를 고통속에서 죽어가도록 방치하고있다는 너무 끔찍했다.

《의료법위반의 또 다른 사각지대는 료양병원이다. 료양병원은 받는 금액이 일정하기때문에 환자

에게 쓰는 돈을 아끼도록 병원이 이리 올라간다. 그래서 주사기 등 1회용품의 재사용은 말할것도 없고 감염위험때문에 한번 쓰고 버려야 하는 수액 하나를 한두달씩 여러명의 환자에게 돌려가며 쓰고 있다. 더 끔찍한건 병원들이 환자들의 고통에 무감하다는 점이다. 한 료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말기암환자에게 투여되는 진통제를 원래 쓰던 용량의 10분의 1로 줄여서 주었다고 했다. 분만통증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암성통증에 가까워야 할 말이 되는 소리인가. 진통제를 투여하면 편안해 질수 있는데 진통제 몇분을 아끼려고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를 고통속에서 죽어가도록 방치하고있다는 너무 끔찍했다.

《의료법위반의 또 다른 사각지대는 료양병원이다. 료양병원은 받는 금액이 일정하기때문에 환자

에게 쓰는 돈을 아끼도록 병원이 이리 올라간다. 그래서 주사기 등 1회용품의 재사용은 말할것도 없고 감염위험때문에 한번 쓰고 버려야 하는 수액 하나를 한두달씩 여러명의 환자에게 돌려가며 쓰고 있다. 더 끔찍한건 병원들이 환자들의 고통에 무감하다는 점이다. 한 료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말기암환자에게 투여되는 진통제를 원래 쓰던 용량의 10분의 1로 줄여서 주었다고 했다. 분만통증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암성통증에 가까워야 할 말이 되는 소리인가. 진통제를 투여하면 편안해 질수 있는데 진통제 몇분을 아끼려고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를 고통속에서 죽어가도록 방치하고있다는 너무 끔찍했다.



남조선에서 범죄집단으로 비난받는 병원